국제유가 급등에 석유화학 “올상”

한화·호남 주가 보합·약세 전환 ... SK는 자원개발 타고 강세

국제유가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석유화학 주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고 중동산 두바이(Dubai)유도 64.7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4월18일 석유화학기업 주식은 원재료가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화석유화학은 4월17일 5%대의 급락세를 보인데 이어 4월18일 오전 시도했던 제한적 반등에 실패하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며, 4월17일 2.80% 떨어졌던 호남석유화학도 다시 1.44% 내리며 6만1500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LG석유화학의 1/4분기 영업실적이 기대이하로 부진한데 이어 나프타(Naphtha) 등 원가부담이 높아 연간 매출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종전보다 9.1% 낮추었다.

한화증권도 “고유가가 석유화학업계 수익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이며 향후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게 되면 영업이익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수익률 견해를 유지했다.

반면, 대표적 원유정제에 자원개발주인 SK는 4월18일 장중 7만1300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최고기록을 세운 뒤 오전 11시30분 현재 전날보다 2.31% 오른 7만1000원에 거래됐다.

2005년 말 예멘 마리브 광구의 생산계약 종료로 2006년 한때 주가가 5만원대로 밀리기도 했지만 아직 여타 보유광구의 가치를 감안하면 좀 더 상승여력이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화학저널 2006/04/19>